



최근 계속되고 있는 폭염과 가뭄으로 극심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신안군 신의면 기도 주민들을 위해 군 관계자들이 행정선에 실어 온 생수를 나눠주고 있다. /신안=이성선기자 sslee@kwangju.co.kr

전남 가뭄 비상... 섬지역 식수난

강수량 평년의 절반 수준... 저수율도 '뚝' 농작물 시들고 돼지 등 가축 7만마리 폐사

계속되는 가뭄과 폭염으로 전남 지역 논과 밭이 바짝 타들어가고, 섬지역에서는 식수난을 겪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달 중순까지 큰 비가 없을 것으로 보여 농작물 피해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18일 전남도와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의 7·8월 평균 강수량은 320.8mm로 평년(599.7mm)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올 들어 전남지역 누계 강수량도 777mm로 지난해

977mm보다 200mm, 평년 1045mm와 비교해 300mm 가까이 비가 덜 내렸다. 여수, 고흥, 해남, 완도, 신안과 진도의 섬 등지는 6월 1일부터 최근까지 내린 비의 양이 300mm에도 못 미치는 등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어 일부 지역은 식수난까지 겹치고 있다. 전남도는 현재 신안군 5개섬(위도·문병도·고사도·평사도·기도) 주민 108명에게 식수 1.16t을 공급하고 있다. 또 완도 군외면 서화도와 동화

도 등 29가구 50명에게 생수 500여병을 지원했다. 폭염으로 농촌 지역 노인들의 건강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는 마을회관, 경로당 등 5480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하고 재난안전 도우미 1540명을 투입해 노인들의 여름 건강 관리에 나섰다. 또 전화 및 방문을 통해 독거노인 6만6529명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 확인하고 있다. 유독, 비가 적었던 진도와 해남 등 전남 서남해안 지역에서는 출하를 앞둔 대파의 잎이 말라 비틀어지는 등 수확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잡채, 고추도 생육에 활력을 잃어 수확량

감소가 우려된다. 농민들은 긴급 관정을 파거나 스프링클러, 양수기 등 여러모로 물공급에 나서는 등 가뭄과의 전쟁에 나서고 있다. 기록적인 더위로 해충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벼멸구는 지난 200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벼멸바구미는 순천과 영광, 곡성 등에서 올해 1675ha에서 발생, 전년(541ha)과 평년(617ha)의 3.1배와 2.7배에 달했다. 배일굴파리류는 발생면적이 844ha로 평년(484ha)보다 2배가량 많았다. 반면, 비가 오면 극성을 부리는 세균이나 곰팡이병인 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병 등은 고온에 발생면적이 줄

었다. 더위에 허덕이는 것은 가축도 마찬가지다. 연일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전남 지역에서는 닭 6만7300여 마리가 폐사한 것을 비롯한 오리 9700여 마리, 돼지 114마리 등 가축 7만7100여 마리가 떼죽음을 했다. 저수지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전남 지역 일선 시·군과 농어촌공사가 관리중인 저수지(3219개소)의 평균 저수율은 60.3%로 평년 76%와 비교해 16%가량 낮다. 나주호와 장성호, 담양호, 광주호 등 영산강 유역 4대호 저수율은 52.7%로 절반을 겨우 웃돌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립공원서 '주차장 캠핑' 못한다

월악산공원, 카라반 등 불허... 전국으로 확대

앞으로 국립공원 주차장에서 캠핑카나 카라반(캠핑 트레일러)을 주차하고 캠핑을 하는 이른바 '주차장 캠핑'을 하지 못한다. 16일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따르면 최근 월악산국립공원은 최근 관내 닷새 야영장 주차장에서 캠핑카와 카라반을 이용해 캠핑을 하는 '주차장 캠핑'행위를 금지하고 계도를 시작했다.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민원도 발생하고 주차 면적도 적어 국립공원 주차장에서 캠핑하는 것을 금지했다"면서 "앞으로 전국 국립공원에서 주차장 캠핑을 하지 못하도록 계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립공원에서 캠핑카와 카라반을 세우고 캠핑할 수 있는 곳은 부족하다는 점에서 캠핑족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동안 캠핑카나 카라반 소유자들은 암암리에 국립공원 주차장에서 캠핑을 해왔다. 하지만, 월악산국립공원 측은 캠핑카와 카라반 이용자들이 성수기 닷새 야영장 주차장에서 캠핑을 하는 바람에 3~4대의 주차공간을 차지하고 다른 이용자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전국에 캠핑카와 카라반을 세우고 캠핑을 할 수 있는 곳은 국립공원 설악동 8면, 오대산 9면, 치악산 구룡 2면, 거제도 6면, 덕유대 5면, 주왕산 7면, 지리산 달궁 9면, 지리산 덕덕 4면, 월악산 송계 7면, 태안 3면 등 통틀어 60면에 불과하다. /연합뉴스

광주시 개방화장실 대폭 확대

공공기관 등 1285곳

광주시는 "국제행사 대비와 화장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로변 건물 화장실의 개방 운동을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개방 대상 화장실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택시, 버스승강장이 밀집한 1285곳이다. 광주시는 특별교부금 1억원을 자치구에 추가 지원, 건물주(관

리자)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청결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화장실 20곳을 우수 개방화장실로 지정, 특별지원금, 표창, 안내표지판 제작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시 경정형 생태하천수질과 사무관은 "개방화장실 도입으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건물의 이미지 개선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hzky@kwangju.co.kr

폭염·적조에 해파리 습격까지 여수수협 경매 물량 급감

기록적인 폭염으로 여수수협의 경매 물량이 급감했다. 전남 해역 일대에 폭염과 적조, 해파리 등 악재가 겹쳐 어획량이 크게 준 것이다. 18일 여수수협에 따르면 남해안 일대의 폭염이 계속돼 경매 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20%가량 줄었다. 폭염과 적조에 바다에 물고기 자체가 줄었고, 남해안에 넓게 퍼져 있는 해파리떼로 조업이 힘들어 출어를 포기하는 어선들도 많다는 게 수협의 설명이다. 해파리는 어획량 감소와 그물 등 어구 파손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또 안강망, 유자망 어선들의 금어기마저 겹쳐 최근 며칠간 경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는 26일부터 금어기가 끝난 유자망 어선들이 출어를 하지만 폭염과 해파리떼의 피해가 계속된다면 어획량 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여수수협 관계자는 "폭염으로 어획량이 줄고, 해파리 때문에 조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민어·갈치잡이 어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멸치 등의 경매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금어기가 풀리면 어획량이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수수협은 지난해 수산물 위관량 3만2000t(위관액 1300억원)을 기록하는 등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산물을 위관하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절전한 만큼 '전력시장'에 되판다

'공급 확충→수요관리' 전환... 시간대 차등요금 확대 심야전력 저장해 한낮 피크시간에 사용... 10월 추진

반세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한 심야전력을 한낮 피크시간대 전력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된다. 기업이 ESS를 본격 도입하고 수요자원 시장이 활성화하도록 최대피크와 경부하 시간대의 요금차를 더 늘리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10월 중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경제 시대의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신시장 창출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정부가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중심에서 시장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5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는 우리나라 전력소비를 기존의 공급확대 정책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우선 선택형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확대한다. 심야시간대 전기를 저장했다가 주간 피크시간대에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동·하계 피크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높은 요금을 물리고 나머지 시간대는 요금을 할인해 차등률을 강화하는 선택형 요금제다. 계약전력 30만kW 이상 3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약전력의 5% 이상 용량으로 ESS를 설치하도록 했다. 계약전력 1000kW 이상 공공기관 1800여곳도 권고 대상이다. ICT를 통해 피크시간대 출력을 통제해 남은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설치도 적극 유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17년까지 3조5000억원 규모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영암호 일대에 수상비행장 추진

2018년까지 52억 투입

전남도는 영암호 일원에 수상비행장 건립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18일 "국토교통부의 항공래저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오는 9월 말까지 수상비행장 건립 제안을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도는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 52억 원을 들여 오는 2018년까지 영암호에 정박장, 착륙대, 계류시설 등을 구축

하고 흑산도와 흥도, 거문도 등 3곳에 는 간이 이·착륙 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또 수상비행장 운영주체로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난해 말 비행장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마쳤다. 한편 국토부는 광역 지자체로부터 항공래저 인프라 조성계획을 받아 10월 중에 거점지역 후보 3~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61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since 1952 **화강의대**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신협대출

한도는 캐피탈만큼 높게 ↑
금리는 은행만큼 낮게 ↓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내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낮은 금리로 원하는 만큼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금호지점 | 팀장 010-4948-2882
풍암지점 | 팀장 010-3642-6142
궁동본점 | 팀장 010-3603-7981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1 연수일정(2013년 제11기)

- 개강일시 : 2013. 9. 2(월) 기초오후 14:00 기초아간 18:30 심화오후 14:00 심화아간 18:30
-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3. 8. 1(목) ~ 2013. 8. 31(토)
- 수업기간 : 2013. 9. 2(월) ~ 2013. 12. 20(금) (총 90시간)
- 수강료 : ₩360,000
- 모집인원 : 기초오후반 : 30명 기초아간반 : 30명 심화오후반 : 30명 심화아간반 : 30명

2 원서교부 및 접수처(토, 일 공휴일 휴무)

- 전화 (062) 530-3873~3876
- 담당교수 : H.P 010-2611-1171, 011-9712-1378
- 광주은행: 074-107-004114 (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http://sle.jne.go.kr

교육사업에 동참하실 분 찾습니다.

주)쓰리엘은 대한민국의 사교육 시장을 바꿔나갈 활력있고 능력있는 사원을 모십니다.

팀장 00명
강사 0명

교육사업에 열정 있으신 분

■ 교육 콘텐츠 사업

유치부	국가에서 지정하는 의무교육, 생각하는 눈술 영어회화, 영문법, 중국어, 씨홍스
초등부	영재수학(9권), 논술(초·중·고급) 영어회화, 영문법, 사회
중등부	1,2,3 영문법, 영어회화 논술고급, 사회
고등부	고1, 이과문과, 국어(1,2,3)

wawapen
태블릿PC

주)교육사업 쓰리엘 광주지사
062)234-5356 / 010-9535-5333

2013년 2학기 公國認家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 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7기)	광주교육대학교(8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3. 9. 6(금) 08:10 (토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3. 9. 7(토) 08:10 (중급반)	·월, 목 야간반: 2013. 9. 2(월) 19:00 (초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3. 9. 5(목) 08:10 (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3. 9. 7(토) 14:10 (토급반)
모집기간	2013. 7. 25(목) ~ 9. 7(토)	2013. 7. 25(목) ~ 9. 7(토)
수업기간	2013. 9. 6(금) ~ 2014. 2. 22(토) (5개월 24주 96시간)	2013. 9. 2(월) ~ 2014. 2. 22(토) (5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8:10~13:00	·매주 목요일 오전반 09:10~13:00 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월, 목요일 야간반 19:00~21:00
수강료	₩350,000 (예금주: 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350,000 (예금주: 광주교대) ·우체국: 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1,2단계(기초, 심화) 연수과정 수료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원 한문지도사자격 취득 기회 부여 ·각 전문대학원 교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 대학교(영남대, 후고)교과목 담당 가능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교사 1급~3급(사범부)기회 부여	·1,2단계(초급, 중급) 연수과정 수료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원 한문지도사자격 취득 기회 부여 ·각 전문대학원 교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 대학교(영남대, 후고)교과목 담당 가능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교사 1급~3급(사범부)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950-3582~4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 062)520-4243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eue.ac.kr/